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9. 3 | Vol. 291 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법왕사
조계종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제37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회향

법왕사에서는 제37회 백고좌법회에 즈음하여 영가천도 49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입재한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3월 15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오재 3월 1일(음. 1월 25일)

육재 3월 8일(음. 2월 2일)

막재 3월 15일(음. 2월 9일)

(재일은 매주 금요일입니다)

※ 영가 접수 받습니다.

※ 동참금은 영가 1위당 5천원입니다.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겉옷, 신발(짚신) | 사중에서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Vol. 291호

04 깨침의 향기

청정(傾聽)이 최고의 약입니다 · 원공당 정부 대종사

06 비슬산방

왜 불교인가(2) · 실상 주지스님

08 부처님이야기 – 초기원형불교 자료에 근거(37)

고파마 부처님의 사리와 유물의 분배 이야기 · 영일스님

12 불교교리산책

존재간의 법칙 12연기설(緣起說)(5) · 영일스님

16 명찰 순례

해동(海東) 화엄종찰 영주 부석사(浮石寺)

20 법회이야기 / 팔상성도 대법회

도솔천에서 내려와 진리의 등불 밝히다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콜레스테롤 정상수치와 LDL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

28 법왕사소식

30 법왕사게시판

33 해오름소식

34 해오름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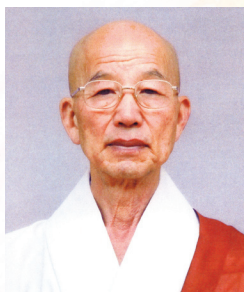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s.or.kr | 발행일_불기 2563(서기 2019)년 3월 1일 발행 | 통권_291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영일, 상철, 자행, 자운, 박창모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傾聽)이 최고의 약입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효과적인 경청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고의 약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인기도 좋습니다. 다른 이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경청자와 같이 있으면 어울리가 쉽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로 하여금 경청자를 돕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경청자가 될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만일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을 때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일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든 적은 없습니까? 다른 이의 말을 가로채 마 무리 한 적은 없습니까? 반성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인내심으로 기다려 봤습니까? 상대방 말에 정성껏 응답했습니까? 조바심을 내고 무조건 반대 의견을 안냈는지요? 다른 이의 말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그 사람이 애써 하려는 이야기에 이는 척 끼어들지는 않았는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미리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는지요? 이야기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단정은 않았는지요?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며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퍼붓지는 않았는지요?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습관은 없는지요.” 이상과 같은 반성을 항상 되풀이해



서 비난하는 습관은 묻어두시고 경청 잘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경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입니다. 일체중생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관세음보살. 부처님 귀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중생의 소리를 잘 들어서 그렇습니다. 귀만 열면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어떠한 일든지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중요하게 여기고 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면 치료는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상담법사는 80%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환자는 그저 치료방법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환자는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상담자는 듣기만 하면 치료는 환자 스스로 그냥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경청을 해야 합니다. 말 잘 들어 주는 사람이 달인이 됩니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은 소리가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해야 됩니다. 적절한 맛장구로 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청자는 성공합니다. 공부도 경청, 사업도 경청, 대인관계는 더욱 경청이 제일입니다.

감정적, 주관적으로 듣지 말고 지성적, 객관적, 이성적으로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경청을 잘하면 자연의 소리도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자는 남의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리를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잘 듣는 자는 그 듣는 놈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 지극정성 모든 감각을 동원해 하나하나에 주의 깊게 열심히 상대방의 거울이 되십시오. 경청 않는 젊은이는 천박하고 경청 않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젊었을 때 경청을 잘하면 늙었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 말을 잘 수순을 합니다.

양로원, 복지원 가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어째서 자식을 하고 못살고 양로원에 왔느냐?” “싫어한다.” “왜?” “아이고, 평생 동안 말 안 들어주는 습관이…” 젊어서 말 안 들으면 늙어서… 젊을 때는 순종(順從)이고 늙어서는 수순(隨順)이라고 합니다. 수순은 보살이 중생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수순은 안에서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말 잘 듣는 노력을 하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불자 여러분들, 올해는 닭의 해라서 닭처럼 비평을 잘 했는데 내년에는 개의 해라, 그저 개한테 배울 것이 꼭 하나 있는데 개는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꼬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 경청하는 사람이 됩시다. 귀인이 됩시다. 복인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덕인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법어집 『인생졸업장』에서

왜 불교인가?(2)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부처님이 계실 당시에 인도의 사상계는 대략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절대자인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상 및 종교(尊祐造論)입니다. 그 당시 신의 이름은 브라흐만(바라문)인데 이 신을 믿는 종교를 브라흐만교라 하며, 요즘의 유일신을 믿는 종교와 거의 같은 사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운명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주장하는 사상 및 종교(宿命造論)입니다. 요즘 같으면 사주팔자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 합니다.

세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가 없이 아무렇게나 생겨났다고 하는 사상 및 종교(無因無緣論)입니다. 요즘 같으면 주먹이나 돈, 권력 등을 믿고 설치는 무리들이 이에 속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부처님 당시의 상황과 요즘의 사정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세 가지 그릇된 길(三種外道)이라 하여 비판하셨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위의 세 가지 가르침이 모두 인간(行爲者)의 도덕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죽여 놓고도, “그것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절대자(신)가 죽인 것이다”, “운명적으로 죽게 되어 있었는데 내가 손을 댄 것 뿐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 죽은 것이지 내가 꼭 죽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경우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훔치며, 비윤리적인 생활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며, 어리석음에 뒤떨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위의 세가지 가르침은 또한 인간(行爲者)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권투선수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고 맘을 먹었으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뜻에 의하여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며, 운명적으로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며, 반드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살생하고, 도둑질하

고, 사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술을 먹는 삶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절대자가 창조했다는 설, ▲운명적으로 태어났다는 설, ▲우연히 태어 나게 되었다는 설 등을 삼종외도라 하시고, 그 이론들을 첫째,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고, 둘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도덕적인 책임과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이론을 비판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론은 이들 두 가지 모두를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론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 즉, 인연에 의하여 생겨난 것들이 이 세상 만물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연기론(緣起論) 또는 인연론(因緣論)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어떠한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므로 선악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를 있게 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 소재가 뒤따르게 되고, 동기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꼭 개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비판의 근거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치심인 연기의 진리를 수천년 동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빠알리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한 고따마 부처님 전생의 십바라밀 이야기(5)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 연재글(제36편)에서는 고따마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어떤 시기에 ‘꾸사와띠’ [현재의 꾸시나라(고따마 붓다의 반열반 장소)]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전륜성왕이 되었을 때 행했던 보시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주석서의 배경이야기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시바라밀과 관련된 네 번 째 이야기이다. 이것은 고따마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한 때에 ‘마하고빈다(mahāgovinda)’라는 왕의 ‘종교고문’이었을 때 행하였던 보시 이야기다.

[전생바라밀행장(Cariyā-pitaka)]¹⁾

1. '마하고빈다 경'

[DN19(mahagovinda s.)]에

나오는 배경 이야기 요약²⁾

[DN19, ns. 293-299]

한 때 세존께서 왕사성의 영취산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빠짜시카’라는 간닷바신이 세존에게 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서서

도리천삼십삼천에서 직접 들었던 것을 세존에게 이렇게 보고한다:

“존자시여, 아주 오래전에 삼십삼천의 신들이 15일 보름 자자일날 회의실에 모였는데, 다른 신들도 모였고, 사대천왕도 동남서북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간닷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존자시여, 세존의 회상에서 청정행을 행한 후, 바로 얼마전에 삼십삼천에 태어난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형색과 찬람함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십삼천의 신들은 기뻐하며 말하길: ‘하늘신의 무리가 더 많아지고, 이수라의 무리는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삼십삼천의 수장인 제석천신은 여래와 그 법을 찬탄하는 게송을 읊고, 다시 ‘세존에 대한 여덟가지의 진실한 찬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신들이 더욱 더 기뻐하면서, 어떤 신들은 네 명의 붓다, 어떤 신들

은 세명의 붓다, 어떤 신들은 두명의 붓다가 출현하여 법을 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제석천은 한 세계에는 오직 한 붓다만 출현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DN19, ns. 300-303]

“이어서 ‘사난꾸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브라호마[범천]가 출현하여 제석천에게 ‘세존에 대한 여덟 가지의 진실한 찬탄’을 다시 한번 선언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제석천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대로 세존에 대한 찬탄을 합니다. 그러자 범천은 매우 기뻐합니다.”

“이어서 사난꾸마라 범천은 동자의 모습으로 변한 후, 공중에서 가부좌를 한 채 삼십삼천의 신들에게 ‘마하고빈다’라는 바라문[고따마 부처님 현겁전생의 한 모습의 이야기]를 합니다.”

[DN19, ns. 304-305] [사난꾸마라 범천이 전하는 고따마 부처님 전생 이야기:]

“세존은 오랜 시간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옛날[현겁의 어떤 시기에] ‘다삼빠띠’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고빈다’라는 바라문 고문이 있었다. 그 왕에게는 ‘레누’

라는 왕자가 있었고, 그 바라문 고문에게는 ‘조띠빨라’라는 젊은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고빈다’ 바라문은 때가 되어 죽고, 왕은 그의 죽음에 매우 슬퍼한다. 그러자 왕자가 그 바라문고문의 아들인 ‘조띠빨라’가 그의 아버지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며 그의 아들 ‘조띠빨라’를 왕의 고문으로 추천하고, 왕은 그를 받아들인다. “조띠빨라”는 여러 가지 일처리에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데, 이에 사람들은 그를 ‘마하고빈다’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조띠빨라’는 ‘마하고빈다’라고 불린다.

[DN19, ns. 306-310]

“마하고빈다 고문은 ‘레누’ 왕자의 친구들인 여섯명의 카띠야왕족에게, ‘다삼빠띠왕이 나이들어 죽을 때가 되었으니, 왕자가 왕국을 통치하고, 왕국을 분할하여 함께 통치하도록 제안하라’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레누왕자에게 다가가서 그대로 제안하고, 왕자는 그 제안을 수용한다.

“다삼빠띠왕은 때가 되자 죽고, 그 아들인 레누왕자가 왕위를 이어받는다. 레누왕은 왕이 되자, 오욕락에 빠져살게 된다. 이때 ‘마하고빈다’ 고문은 여섯 명의 카띠야

1) 여기의 원문자료는 6차결집본의 로마자 온라인 출판본을 그 근거로한다: CST4: KN-Cp.1:5 (mahāgovindacarīyā vs. 37-39). 그리고 번역은 직역과 의역을 혼용한다. 주석서[KN-Cp-aṭṭk-nidānakathā]에 의하면 ‘이전생바라밀행장(Cariyā-piṭaka)’은 붓다께서 경각후 최초로 자신의 고향인 까빨라와투를 방문할 때 ‘반얀나무숲(nigrodha-ārāma)’에서 이중신통을 보인후 석가족을 위해 ‘불중성경’을 설한 후, 이어서 사리불존자가, ‘붓다가 되는 실천행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이에 답하기위해 설한 것이라고 한다.

2) 마하고빈다의 전생바라밀행과 관련된 빠알리 자따까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따까의 배경이야기는 제외되며, 대신 ‘장부’의 ‘마하고빈다 경(DN19(mahāgovinda s.))’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다. 그리고, ‘전생바라밀행장’의 주석서의 설명도 부분적으로만 여기에서 추가한다.

왕족들에게 레누왕에게 가서 이전에 레누왕
자가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한다.

“그들은 레누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한다.
왕은 그 말을 기억하고, ‘마하고빈다’ 고문
에게 자신의 왕국(현재의 인도)을 일곱 부분
으로 나누도록 한다. ‘마하고빈다’는 왕국
을 일곱 부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데, 그
한 가운데에 레누왕의 왕국을 위치시킨다.
다른 여섯 왕국은 그 레누왕의 왕국을 둘러
싸는 형태로 분할되는데, 여섯 명의 카띠야
왕족들은 이러한 분할에 만족한다.

[DN19, ns. 311-317]

“여섯 명의 카띠야 왕족들은 마하고빈다 바
라문에게 계속하여 자신들에게 고문관으로
서 충고 해주기를 요청하고, 마하고빈다 바
라문은 승낙한다. 이제 마하고빈다 바라문
은 7개국에 걸쳐서 고문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생바라밀행장의 주석서에 의하면, 이 때 마하고
빈다는 많은 부와 영예를 얻는다. 그리고 그 부를 많
은 사람들에게 보시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마하고
빈다’의 이야기가 보시바라밀의 항목에 포함된 것으
로 보인다. 뒤의 전생바라밀행장의 계승참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마하고빈다 바라문
은 일곱 명의 유명한 바라문과 관정식을 거
친 칠백 명의 학생들에게 주문을 가르친다.
그런데 시일이 좀 지나자 마하고빈다 바라
문이 ‘범천을 볼 수 있고, 눈앞에서 범천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일어난다. 마
하고빈다 바라문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민을 한다. 그리고 옛날에 나이
들고, 존경받는 바라문 스승들이 말하는 것
을 들은 것을 기억한다: ‘누구든지 우기 4개
월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동정-연민의 명상
(karuṇa jhāna)을 수행하면, 범천을 보고, 범
천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시
험해보기로하고, 레누왕과, 여섯 명의 카띠
야 왕족들, 일곱 명의 유명한 바라문, 칠백
명의 학생들, 그리고 자신의 40명의 부인들
에게 자신이 4개월간 동정-연민의 명상을 수
행할 것을 알린다. 이들은 모두 마하고빈다
바라문의 결심을 승인한다.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동쪽문의 성에 새
로운 건물을 짓게 하고, 우기 4개월간 동정-
연민의 명상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기 4개월
간의 명상수행이 끝나도 범천을 보지 못하
고, 범천과 대화하지도 못하자 마음이 불편
해진다.

[DN19, ns. 318-320]

“그 때, 사난꾸마라 범천이 마하고빈다 바
라문의 앞에 나타난다. 마하고빈다는 깜짝
놀라면서 누구인지를 묻고, 그 범천신은 자
신이 사난꾸마라 범천이라고 계승으로 알려
준다. 그리고 이생에서의 이익 혹은 다음 생
에서의 이익과 관련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하고빈다 바라문에게 묻는다.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미래 오는 세상에
범천에 태어나는 방법을 묻는다. 사난꾸마
라 범천은 ‘물질적인 탐착을 버리고, 격리된

곳에서 동정-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악취를 제거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제거하여 머물고, 이러한 것들에서 훈련하면 불사의 범천에 이른다' 라고 대답한다.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이중에서 '악취'의 뜻을 범천에게 묻는다. 범천은 '악취'란, '다양한 수많은 번뇌들 즉, 성냄, 진실하지 않음, 사기, 해침, 인색, 거만, 질투, 탐, 진, 치, 아만 등등의 번뇌에서 풍기는 나쁜 냄새'라고 설명한다. 마하고빈다는 사난꾸마라 범천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러한 것들은 재가 상태에 머물면서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출가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범천은 그렇게 하라고 승인한다.

[DN19, ns. 321-325]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레누왕에게 가서 자신이 출가할 것이니 다른 고문관을 찾아볼 것을 권하다. 그러자 레누왕은 처음에는 마하고빈다 바라문의 출가를 말렸지만 나중에는 허용하고, 자신도 그를 따라 출가하겠다고 한다.

다음으로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여섯 왕국의 카따야 왕족에게 가서 자신의 출가의지를 밝힌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말렸지만 나중에는 허용하고, 자신들도 그를 따라서 출가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일곱 명의 저명한 바라문들과 칠백 명의 학생들, 그리고 40명의 그의 부인들도 처음에는 마하고빈다 바라문의 출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렸지만, 나중에는 결국 허용하고, 자

신들도 그를 따라 출가하겠다고 말한다.

[DN19, ns. 326-328]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레나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출가한 후, 마을과 도시, 그리고 왕실 도시 등을 유행하는데, 사람들은 마하고빈다 바라문과 일곱 명의 왕들에게 예경을 한다.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범천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으로써 '친절-자애의 마음(mettā)'을 한방향으로 확산하며 머문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 세번째 방향, 네번째 방향으로, 다시 위와 아래 그리고 가로질러서, 다시 모든 방향으로 세상에 친절-자애의 마음을 확산하며 머문다. 이와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동정-연민의 마음(karuṇā), 이타적 기쁨의 마음(mudīṭā), 평정의 마음(upekkhā)을 확산하며 머문다.

그 때 마하고빈다 바라문의 가르침을 모두 배워 알게 된 사람들은 죽은 후에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리고 일부만 알게 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타화사재천에, 어떤 사람들은 화락천에, 어떤 사람들은 도솔천에, 어떤 사람들은 야마천에, 어떤 사람들은 삼십삼천(도리천)에, 어떤 사람들은 사대왕천 신의 무리에 태어난다. 그리고 매우 적게 알게 된 사람들은 간닷바 무리에 태어난다.

*여기까지 사난꾸마라 범천신이 고따마부처님의 현겁전생의 한 모습인 마하고빈다에 대해 했던 이야기이다.

존재간의 법칙 12연기설(緣起說)(5)

불교는 수천년 역사를 지닌 종교로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교리를 갖추고 있다. 불교의 교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고 대중을 상대로 설법하신 내용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려온 고대 인도의 갖가지 사상과 철학들이 녹아들어 있다. 부처님을 본받아 깨침을 얻어 궁극적으로 성불하고자 하는 불자라면 마땅히 부처님 설법의 핵심과 그 의미를 명철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불교의 핵심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차례에 나누어 연재하고자 한다.〈편집자〉



다른 말로 집착을 말하는 것으로서 애(愛)의 염(念)에서 일어나는 강한 취사선택(取捨選擇)의 행동으로서 취득해 가지려는 작용이 취(取)이다. 이러한 작용, 즉 집착하는 마음 - 취(取)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유(有)라고 한다.

앞의 애는 마음속에 생기는 심한 애증의 생각인데 반해 취는 생각 뒤에 생기는 취사(取捨)에 대한 실제행동이다. 즉, 욕망에 의해 추구한 대상을 자기 소유화하려는 현상이다. 강하게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집착을 말한다. 이러하기에 여기에서 바로 아상(我相)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무명에 젖은 강한 아상(我相)이 발생하면 결국 극심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촉(觸)은 근·경·식(根境識)이 접촉되는 것을 말하고, 수(受)는 그 근·경·식이 접촉됐을 때 느낌을 말한다. 그리고 애(愛)라고 하는 것은, 근·경·식이 접촉돼 느낌이 있으면 거기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애라고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집착이 생긴다. 그것이 취(取)이다.

유(有, 산스크리트어 bhava)

취(取)에 의해서 즐거움의 대상을 취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리석은 중생은 더 나아가서 소유하는 작업을 해서 그 대상을 기어이 자신이 가지려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유(有)라고 한다. 그리고 유(有)는 차별(差別)을 뜻

한다. 취(取)는 곧 선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소유하려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가지려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차별, 곧 내 것·네 것을 구분하다가 보니, 원수다·친구다 하는 여러 가지 차별을 번거롭게 일으키며 갈등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有)이다. 그래서 애(愛)와 취(取)로 인해 업(業)을 짓게 된다. 이때의 업은 행에서 지은 업보다 매우 강렬하다. 자기가 좋아 하는 것을 가지려 하다가 보니 강한 업(業)을 짓게 된다.

그리고 취(取)가 생겨나면 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각기 좋은 것을 서로 가지려 하는 다툼의 감정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한 다툼의 감정, 다른 주장, 그런 차별심도 유(有)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과 사회의 부조화(不調和)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차별심·다른 감정, 곧 유(有)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대립이 생겨 다툼이 일어나 고(苦)의 인생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고(苦)는 다시 다음 세상에서도 똑같이 전개된다. 즉, 근본원인인 무명(無明)을 없애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이와 같은 고(苦)의 윤회를 되풀이 할 따름이다. 무명(無明)을 없애지 않는 한, 할아버지 대(代)의 무명이 손자 대(代)로 계속 이어가게 된다.

또한 유(有)라는 글자엔 ‘있다(be), 된다(become)’의 두 가지 뜻이 포함돼 있다. 그 대상이 어떤 물질이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있다, 없다’ 중에 ‘있다’가 되겠지

만 그 대상이 어떤 물질이 아니고 생각이나 느낌, 사상, 이념일 때는 그것을 가지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중에 ‘된다—이루어지다’가 되는 것이다.

생사(生死)하는 존재 그 자체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취에 의해서 — 취를 조건으로 즐거움의 대상을 취하려고 노력한다면, 모든 중생은 그 대상을 자신이 소유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을 유라고 한다. 한번 취하면 그것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하려는 소유욕으로 인해서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집착에 따라 업(業)이 형성된다.

그런데 업설에 의하면 집착 때문에 업(業)이 만들어지고, 그 업은 생(生)을 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을 예로 들면, 사랑하고, 집착하고, 결국 결혼해서(소유해서),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를 낳는 게 바로 생이다.

생(生, 산스크리트어 jati)

앞서 유(有)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대립이 생겨 다툼이 일어나서 고(苦)의 인생이 전개된다고 했다. 생이란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 고의 인생이 전개되는 것도 생이다. 이러한 인생의 고(苦)는 다시 다음 세상에서도 똑같이 전개된다. 그것이 생이다.

그리고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고

를 생산하는 것이다. 고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고(苦)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生)이란 고(苦)를 생산한다는 말이다.

즉, 근본원인인 무명(無明)을 없애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이와 같은 고(苦)의 윤회를 되풀이할 따름이다. 무명(無明)을 없애지 않는 한, 할아버지 대(代)의 무명이 그대로 손자 대(代)에,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유에 연해 생이 발생하는데, 업(業)은 생을 있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업(業, karma)의 인연으로 — 업을 조건으로 미래의 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有)에 의해서 그것을 ‘있다, 또는 된다’가 되면, 그 다음 사물이나 생각이 생성되는데, 생(生)이란 단어는 모든 존재의 출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고(苦)가 생겨나는 것도 다 포함한다. 즉, 여기서 생이란, 알에서 태어나는 것,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갑자기 태어나는 것, 형태가 있는 것, 형태가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 지각이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죽지 않겠다는 생각을 태어나게 —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아기를 비롯한 물체의 생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것도 모두 불교에서는 생(生)이라고 한다.

노사(老死, 산스크리트어 jara-marana)

태어남으로 머지않아 늙게 되고 드디어는 죽음이 온다. 이 노사(老死)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싫고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죽음을 겁내고 싫어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생명이 있는 상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금생(今生)만이 라고 단정하기 때문이다. 생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것은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결국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 생이 있게 되면 늙음과 죽음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고(苦) — 근심, 비애, 고통, 번뇌, 번민 [우비고수뇌(憂悲苦愁惱)]이 발생한다.

이러한 열두 가지의 단계를 되풀이 하고 몇 겹을 그냥 살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무의미한 허상(虛像)이다. 붓다께서는 다시 태어나도 역시 처음부터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면서, 좋다·싫다, 내 것이다·네 것이다,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늙어서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서는 역시 똑 같은 삶을 되풀이 한다.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되풀이 하는 것이 범부의 삶이라 하겠다.

붓다는 늙음·죽음이라는 실존적 괴로움이 태어남(生)을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한 방식으로 있음이라든가 집착 따위를 거슬러 올라가 결국은 무명을 조건으로 일체의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밝혀냈다.

그런데 노사는 단순히 사람의 육체가 늙고 죽는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생각이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것 그 자체도 불교에서는 태어났다가 늙고 죽는다고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는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정(有情)?무정(無情), 삼라만상이 성주괴공(成住壞空)하는데, 이것 역시 노사인 것이다. 붓다의 교설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과 같은 맥락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노사, 즉 성주괴공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무아(無我)라 하고, 공(空)이라 하는 것이다.

무명(無明)과 애욕(愛慾)에 의해서 고통이 생겨난다. 무명을 타파하고, 애욕을 끊어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불교의 궁극 목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다. 진리를 모르는 무지(無知), 즉 무명을 없애면 고통이 없어지게 되는 그 연결고리를 밝힌 것이 연기법이다. 12가지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 12연기설이고, 현실세계의 고통을 관찰해 치유하는 과정을 인과로 설명한 교범이 사성제(四聖諦)이다. 사성제 가운데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밝힌 도성제(道聖諦)가 팔정도(八正道)이고, 중도(中道)이다. 그리고 집성제(集聖諦)를 밝힌 것이 12연기이다. 이것이 붓다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녹야원에서 교진여(?陳如) 등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설한 초전설법이고 붓다 원음이다.



부석사 전경

해동(海東) 화엄종찰 영주 부석사(浮石寺)

부석사는 한국 화엄종(華嚴宗)의 근본도량(根本道場)이다. 676년(신라 문무왕 16) 의상(義湘)이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고, 화엄의 대교(大敎)를 펴던 곳으로, 창건에 얽힌 의상과 선묘(善妙) 아가씨의 애절한 사랑의 설화는 유명하다. 1016년(고려 현종 7)에 원응국사(圓融國師)가 무량수전(無量壽殿)을 중창하였고 1376년(우왕 2)에 원응국사(圓應國師)가 다시 중수하고, 이듬해 조사당(祖師堂)을 재건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수와 개연(改椽)을 거쳐 1916년에는 무량수전을 해체 수리하였다.

경내에는 무량수전(국보 18)·조사당(국보 19)·소조여래좌상(塑造如來坐像:국보 45)·조사당 벽화(국보 46)·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17) 등의 국보와 3층석탑·석조여래좌상·당간지주(幢竿支柱) 등의 보물, 원응국사비·불사리탑 등의 지방문화재를 비롯하여 삼성각(三聖閣)·취현암(醉玄庵)·범종루(梵鐘樓)·안양문(安養門)·응향각(凝香閣)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신라의 불교는 눌지왕 때에 들어와 법흥왕 때에 수용된 뒤에 크게 발전하였다. 중국을 통하여 전입된 교학 불교는 신라 불교로 하여금 종파성을 띠게 하였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운위되는 종파는 화엄종과 법상종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법 사실이 뚜렷하고 종찰이 확실한 것은 의상의 화엄종이다.

부석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본찰로 초조인 의상 이래 그 전법 제자들에 의해 지켜져 온 중요한 사찰이다. 의상은 676년 부석사에 자리 잡은 뒤 입적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법을 이은 법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석사 원융국사비에는 지엄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의상이 다시 제자들에게 전법하여 원융국사에까지 이른 것과 원융국사가 법손이 된 뒤 부석사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 등이 밝혀져 있다.

부석사는 의상대가사 중국 유학 후 수도처로 삼아 안주하다가 뒷날 거대한 사찰을 이룬 곳이다. 부석사가 세워지기까지에 관해 삼국사기에는 고승 의상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이 전하며 삼국유사에는 “의상이 태백산에 가서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세우고 대승교(대승불교)를 포교하니 영감이 많이 나타났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신라 문무왕 16년(676) 2월에 의상대사가 문무왕이 뜻을 받들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상의 제자인 신림 이후 부석사는 인적

물적 측면에서 차츰 변화했다. 신림은 훌륭한 제자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부석사의 화엄종을 크게 중흥시켰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크게 변모하여 현재 부석사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대석단과 석등, 석륵, 장대석, 석탑 등이 경문왕 무렵에 건립되었다.

대석단은 불국사, 원원사, 망해사 등에서 볼 수 있듯 신라 하대 이후에 세워진 사찰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국보 제 17호인 석등이 경문왕 때(861~874)에 만들어진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규모 사찰 건립이 가능했던 것은 신림이 배출한 수많은 화엄대덕들이 국가로부터 상당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부석사에서는 신라 왕의 상을 그려서 벽화로 걸어 놓고 있을 정도였다. 후삼국 시기에 궁예가 이곳에 이르러 벽화에 그려진 신라 왕의 상을 보고 칼을 뽑아 내쳤는데 그 흔적이 고려 때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부석사가 위치한 태백산은 신라 오악 가운데 중사를 지내던 곳으로 흔히 북악(北岳)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의상의 법손들을 북악파라고도 하였다. 화엄종의 본찰인 부석사는 신라 하대에는 대석단 위에 세워진 거대한 가람으로 많은 대중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변하였고 승려가 되기 위해 처음 출가하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고려이후

지금 부석사에 전해지는 화엄경판은 원웅 대덕 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구한말 민속학자인 이능화 선생의 화엄경판고란 책에 의하면 “고려 초에 태백산 부석사에서 2종의 화엄경을 목판에 각했다”고 하였다. 부석사에 현존하는 원웅대덕의 비문에 의하면 그의 성은 김씨이고 자는 혜일이었다. 12세에 용흥사에서 출가하여 복흥사에서 수계하고, 28세에 대덕이 되었다. 정종 때 왕사, 문종 때는 국사가 되었다. 그가 귀산사에 유행하였을 때, 꿈에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네 품속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혜요, 다른 하나는 달이다”고 말하는 순간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일이 있은 뒤 자를 혜일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는 정종 7년(1041)에 부석사에 들어가 화엄종통을 이어받았다. 1053년 부석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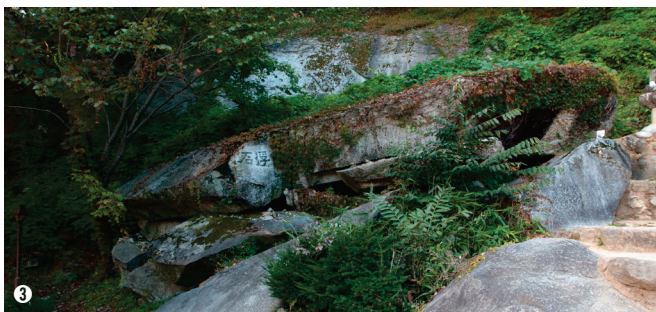
서 세수 90세, 법랍 78세로 입적하자 왕은 원웅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부석사 동쪽 언덕에 있는 원웅국사비의 건립 연대는 명문의 마멸이 심하여 확인할 길이 없으나 입적 이듬해인 고려 문종 8년(1054)으로 추정된다. 비문에는 의상 당대의 부석의 모습과 그의 법손들이 줄곧 이곳에 주석해 온 것을 알려 주는 귀중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타 고려 때 많은 부석사의 건물들이 중창되거나 창건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부석사를 중수한 기록은 자주 발견된다. 조선 성종 21년(1490)에 조사당을 중수하였고 성종 24년(1493)에 조사당에 단청을 하였다. 명종 10년(1555)에 화재로 인해 안양루가 소실되었으며 선조 6년(1593)에는 조사당 지붕을 개수하였다. 선조 9년(1596)

무량수전





①석룡 ②안양루 ③부석

부터 11년까지 석린 스님이 안양루를 중건하였다. 광해군 3년(1611)에는 폭풍우로 인해 무량수전의 중보가 부러져 중수하였고 경종3년(1723)에는 무량수전 본존불의 금색을 다시 했다. 영조 22년 (1746)에 화재로 승당, 만월당, 서별실, 만세루, 범종각 등이 소실되었으나 그 이듬해에 중수하였고 영조 44년(1765)에는 무량수전 본존불의 금색을 다시 했다.

근대이후

일제시대인 1919년에 무량수전과 조사당을 해체 수리하였는데 이때 허리 부분이 잘린 석룡(石龍)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무량수전 서쪽에 있던 취원루를 동쪽으로 옮기고 취현암이라 한 것도 이때라고 한다.

1967년에 부석사의 동쪽 옛 절터에서 쌍탑을 옮겨 범종각 앞에 세웠고 1969년에는 무량수전 기와를 갈았으며 1977년부터 1980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정화하면서 일주문, 천왕문, 승당 등을 신축하였다.

무량수전 (국보 제18호)

부석사의 주불전으로 아미타여래를 모신 전각이다. 아미타여래는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녔으므로 무량수불로도 불리는데 무량수라는 말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



도솔천에서 내려와 진리의 등불 밝히다

팔상성도(八相成道)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중요한 행적을 여덟 단계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서 팔상(八相)이라 한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는 곧 그 자체로 불교의 요체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믿음을 더하기 위해 팔상성도를 즐겨 그렸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팔상도는 인도 녹야원에 남아 있는 돌로 새긴 그림이다. 중국 윈강(雲岡)석굴에는 5세기 무렵에 그린 팔상도가 있다.

특히 불교의 4대 명절에 속하는 부처님 출가재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매년 음력 이맘 때이면 각 사찰에서는 팔상성도대법회를 봉행한다.

1)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연등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 기회에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리라 깊이 다짐을 하며 연등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 하였으나 공양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여인이 들고 있는 꽃 일곱 송이를 간청해 산 수메다는 그 꽃을 연등부처님께 바쳤고 부처님께서는 수메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해 대중이 바친 꽃을 허공에 떠 있게 하셨다.

그때 마침 연등부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진흙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본 수메다는 진흙 웅덩이 위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엮드리며 언젠가 자신도 지금의 연등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다짐하였다.

2)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흰 코끼리가 태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
을 한 마야 부인은 달이 차서 출산할 때가
되자 고향인 데바다하로 향한다. 도중에 위
치한 롬비니 동산에 이르러 마야 부인은 자
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아무런 고통이
나 상처를 받지 않고 사카족의 왕자를 낳게
되니 이 날이 음력 4월 8일이었다.

이 아기는 낳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
我獨存)'이라 외쳤다. 정반왕은 태자의 이름
을 고타마 싯달타라 지었다. 태자가 태어나
자 나라에는 땅이 편편해지고 마른 나무에
꽃과 잎이 피어나는 등 서른두 가지의 좋은
조짐이 나타났다.

를 흐리는 소의 모습 그리고 흙 속에 꿈틀
대는 벌레를 쪼아먹는 새의 모습을 보게 된
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염부나무 아
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다. 이를 지켜본 정
반왕은 태자를 세상과 더욱 멀어지게 해야
겠다고 생각하였으나 태자의 가슴 속에 자
리한 고뇌는 깊어만 갔다. 성년이 된 태자
는 어느 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
해 몰래 성문 밖으로 유람을 나섰다. 그리
고 동문, 서문, 남문에서 각각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고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번민하던 태자는 다음날 북문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출가 수행 중인 사문을 만나게 되
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출
가 수행자에게서 찾게 되었다.

3)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12세 되던 어느 봄날, 태자가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하였다. 그때 태자는 일에 지
친 고단한 농부들의 모습, 채찍을 맞아 피

4)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싯달타의 나이 스물아홉이 되던 해에 아들
라홀라가 태어났고 태자는 모든 사람이 잠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든 한밤중에 마부 찬타카를 깨워 애마인 칸 타카를 타고 카필라 성벽을 뛰어넘어 동쪽을 향하여 달렸다. 왕궁이 멀어지자 태자는 말과 마부를 돌려보내고 사냥꾼의 옷을 바꿔 입고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은 뒤 드디어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당시 이미 높은 명성을 얻고 있던 아라라 칼라마와 옷다카 라마푸타 등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싯달타는 곧 스승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스승들에게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산림에 들어가 6년간의 엄격한 고행생활에 들어간다.

5)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너무 엄격한 고행에 몸이 쇠약해져 죽음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6년의 고행에도 부처님은 아무런 문제의 해결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고행이 도리어 인간의 육신을 피로하게 하여 수행에 방해가 됨을 간파하고 과감하게 고행을 포기하

게 된다. 가나긴 고행으로 노쇠한 부처님은 우루벨라의 네란자라강에서 목욕을 단정히 한 뒤 목녀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얻어 마신 뒤, 보리수 아래 길상초를 깔고 깊은 명상에 잠긴다.

6)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마왕 파순은 궁전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왕국이 모두 무너지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깬다. 그 원인이 바로 수행자 싯달타가 곧 정각을 성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임을 안 그는 자신의 세 딸을 보내 부처님을 유혹하는 등 온갖 계교를 부려 방해하려 했지만 실패한다. 이에 화가 난 마왕은 대군을 이끌고 부처님을 공격하지만 그의 위력 앞에 항복하고 만다. 모든 마왕의 항복을 받은 싯달타는 드디어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셨다. 이때가 부처님이 35세 되던 해인 음력 12월 8일 성도절이다.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7)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탐욕에 허덕이는 중생을 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로 결심하신 부처님은 우선 자신이 지난날 배움을 받았던 아라카 칼라마와 옷다카 라마뫼타에게 법을 설하러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이에 앞서 함께 고행수도를 했던 다섯 수행자가 있던 바라나시의 녹아원으로 가 그들에게 설법을 시작하였다. 이 설법을 부처님이 행한 최초의 설법이라 하여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 한다. 얼마 후, 아사리는 청년과 그의 친구들이 출가하였고 이들을 찾으러 왔던 아사의 부모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또 당시 가장 이름 있는 종교가였던 가섭 삼형제에게 가르침을 설해 그들과 그들의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또 빔비사라왕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퍼실 수 있는 사원을 마련해 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이다. 몇 년 후 부처

님께서는 고향인 카필라국에서 부왕을 비롯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때 10대 제자인 아난과 라훌라, 아나율, 우팔리 등이 출가하였다.

8)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80세에 이른 부처님은 바이샬리 근처의 죽림촌에서 아난다와 단 둘이서 최후의 우안거를 지내게 되는데, 이 우안거에서 부처님은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린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참고 견뎌내지만 근심한 아난다는 부처님의 별세 후에 무엇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묻게 되고 이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유명한 부처님의 열반유혼이다. 자신의 입멸이 가까이왔음을 안 부처님은 바이샬리 근처의 모든 비구를 모아놓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뒤, 구시나가라로 최후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부처님은 고통을 참으며 아난다와 함께 구시나가

라에 이르러 사라나무 숲으로 들어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두고 발 위에 발을 포개 자세를 취한 다음, 선정에 든 채로 열반에 들었다. 이날이 음력 2월 15일로 열반재일이다.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콜레스테롤 정상수치와 LDL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지질(기름 성분)은 콜레스테롤, 즉 고밀도(HDL)-콜레스테롤, 저밀도(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성분이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 원료로 80%는 간에서 만들어지고 20%는 음식에서 얻어지는 우리 몸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저밀도(LDL)-콜레스테롤이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며, 죽상경화증(혈관벽에 지질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노인의 경우 저밀도-콜레스테롤을 100 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색이나 뇌출혈 등의 뇌졸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중성지방이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영양분을 섭취하면 몸에서 쓰고 남은 영양분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조직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지방조직에 저장되는 형태의 지질을 중성지방이라고 부르며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사촌 지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혈액 속의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 높으면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발생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 당뇨병이 있거나 오랜 기간 과음을 하면 중성지방이 상승하기 쉽고 당뇨병인은

중성지방을 150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밀도(HDL)-콜레스테롤이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죽상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인은 고밀도-콜레스테롤을 남성은 40 mg/dL 이상, 여성은 50 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심혈관 질환이며,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입니다.

저밀도-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거나 고밀도-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죽상경화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뇨병인은 지질 수치를 앞에서 말한 범위 내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당뇨병인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혈중 지질수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콜레스테롤)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을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일 때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증가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합병증이 발생하면 위험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습관, 운동 등으로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양약은 정말 심하지 않은 이상 드시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고지혈증은 식생활습관 개선으로도 많이 좋아지기에 나쁜 식습관은 버리고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꼭 챙겨드시고 운동도 하셨으면 합니다.

고지혈증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원인

① 음식물 : 소기름, 돼지기름 등의 모든 동물성 기름과 버터, 쇼트닝, 코코넛 기름과 팜유 등의 포화지방, 모든 트랜스지



방, 고열량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② 유전적 요인 : 유전적 요인으로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기도 하는데 5백명 중의 1명 정도 가족성 고지혈증이라는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나이와 성별 : 콜레스테롤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남자의 경우 20~50세까지는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자는 20세부터 증가하여 남자보다는 낮은 수치로 폐경 전까지 유지됩니다. 폐경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습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HDL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신과, 피임약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④ 비만 : 비만인 경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습니다.

⑤ 운동부족 : 운동부족은 결과적으로 비만을 초래하여 콜레스테롤의 양이 증가됩니다. 유산소운동은 HDL을 증가시킵니다.

⑥ 과음 : 술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지는 못하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⑦ 흡연 : 흡연은 총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⑧ 스트레스 :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으나 스트레스, 긴장 등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⑨ 약물 :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있으므로 병원에 갈 때에는 자신이 복용



하고 있는 약물을 의사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고지혈증 증상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증가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합병증이 발생하면 위험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나 유전적 소인에 의한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황색종, 황색관종, 하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신체의 다양한 힘줄 부위, 피부에 콜레스테롤 침착으로 생기는 황색종, 눈꺼풀에 생기는 황색판종이 생깁니다.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각막주위 백색의 각막환, 간 비대, 비장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운동

고지혈증에 좋은 운동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1시간 정도 자신의 몸에 맞게끔 알맞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걷기, 수영, 등산, 조깅 등이 좋습니다.

아님 재미있는 운동, 즉 배드민턴, 탁구 등도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솔잎, 양파 (양파솔잎즙), 호두진액기름(오메가3), 야생 자초, 야생 오디, 국산달맞이꽃기름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 식품들은 고혈압, 당뇨에도 당연히 도움되는 식품이기에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법왕사 소식

여수 향일암 정초 방생법회 회향



법왕사는 기해년을 맞이하여 새해 음력 1월 10일(양력 2월 14일) 여수 향일암에서 선상 방생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방생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여수대교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거북이 방생을 한 다음 향일암을 참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 설날 합동차례 회향

법왕사에서는 기해년 설날인 지난 2월 5일 설날 합동차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설날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모실 수 없는 불자나 특별히 불교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절에서 모든 음식을 마련하여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는 것으로 이번 합동차례에는 법왕사에 위패를 모신 150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백고좌 회향에 불심도문스님 보살계수계법회

제37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3월 16일에는 불심도문스님을 모시고 불명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님은 장수 죽림정사 조실이며 조계종 원로위원으로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어른이십니다. 스님의 수계법회를 계기로 백고좌법회를 뜻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보름 달집태우기에 관세음보살 현현



지난 2월 19일 기해년 정월대보름에 법왕사에서 봉행한 달집 태우기 행사에서 타고르는 달집에 관세음보살 형상이 현현하여 동참했던 불자들이 신비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달집이 한창 타고르는 도중 갑자기 불꽃이 완전한 관세음보살상을 띄며 한참 나타나 기도하던 불자들이 모두들 신비한 이적이라며 감탄하였습니다.

베트남 불자 법회 회향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동안 법왕사 본당에서 열린 베트남 불자회 수련회가 회향하였습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이들 베트남 불자회는 매달 법왕사에 모여 법회를 열고 외국생활의 애환도 나누고 모국의 동포들을 만나 회포도 풀면서 부처님전에 불공도 올리는 귀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 기해년 정초 7일 기도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기해년 정월을 맞이하여 2월 7일(음 1월 3일)부터 2월 13일(음 1월 9일)까지 7일간 정초 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기도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새해 가족의 건강과 사업 및 학업성취 등 각자의 소망을 기원하였습니다.

2019년 기해년 입춘기도 회향

법왕사에서는 2019년 2월 4일 기해년 입춘일을 맞이하여 당일 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기도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기도법회 후 입춘방과 부적도 나눠 받았습니다.

제37회 백고좌 영가천도 49재 봉행중

법왕사에서는 제37회 백고좌법회 기간에 영가천도 49재를 봉행합니다. 이번 49재는 지난 1월 26일 입재하여 3월 15일 막재까지 49일 동안 봉행합니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만원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불자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49재 2재에 범진스님 초청 특별 법문

법왕사에서는 제37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제2재이자 정초기도 중인 2월 8일 법회에 우리나라 범패의 권위자이신 마곡사 범진스님을 모시고 특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스님은 범패, 판소리, 시조뿐만 아니라 선묵화, 선화 도자기등 다양한 불교예술을 섭렵하신 분으로 이날 법회에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귀중한 공연을 참관하였습니다.

2월 18일 선묵혜자스님 특별법문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28일(음 1월 24일) 선묵혜자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평화의 佛' 특별법문을 청해 들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스님께서 인솔하는 108 합창단의 음성공양도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뜻깊은 법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 스님께서 보시하신 '평화의 불' 점등식도 봉행하였습니다.

3월 30일부터 제38회 백고좌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100일 동안 제38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는 법왕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기 법회로 대한민국 불교계의 법회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정문숙 정현숙 최 풍 정 음

법사비 올리신 분

이정상 우담바라 합창단 지장회 신장회

물품 보시하신 분

효신스님 신재국 사과 box 방지현 (도사락, 테이프)
구실상화(도사락) 구실상화(밀대자루외) 김상한
김근태 (음료수)

사보 도움주신 분

권순예 1000부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ㄷ이병재 영가 ㄷ장남순 영가 최은진 이원석
문국연 이지민 심보현 홍준서 김경희 정해용
김세활 김순자 신현옥 최재훈 장민수 천세진
문수명 이상훈 공정숙 장정우 신병기 이승빈
신종수 박영숙 염보라 이상욱 류시환 김일순
권현구 양봉률 전삼수 고연숙 서복임 김경찬
김인수 정정교 김상훈 박민정 조철제 조명석
서복만 김정윤 김성덕 이정란 장무진 여택동
김은진 전태수 권민지 손연경 이승재 이종량
박정숙 김순자 김성훈 문지수 문은지 박연정
김기수 손대호 김현진 박준홍 박준영

◎ 떡공양 올리신 분

우재현 김윤옥 김수란 박영민 이일호 박분남
배해동 김민서 이창수 차남석 김복남 제갈옥
양봉률 양지영 김봉원 김상한 조철제 백월순

박계옥 김세활 김수란 정민제 김판돈 엄준원
박철규 김상희 이종량 권보형 양봉훈 배해동
김정웅 신지원 사공순옥

◎ 꽃 공양 올리신 분

무아스님

◎ 과일공양 올리신 분

박진원 김선우 제갈옥 신용흥 김정윤 손대호
신재국

◎ 대중공양 올리신 분

권순예 박종길 권중훈 방지현 자비회일동
지장회일동

◎ 저금통 회향하신 분

노수정 신지원

연등올리신 분

◎ 대등 올리신 분

2 계해정 한의원 3 금근수

◎ 단청등 올리신 분

16 우연희 17 감장남 18 이희동 19 정안식
20 오진환 21 해오름 요양원 일동 22 박천득
23 박사병 24 안주선 25 안지영

◎ 1년등 올리신 분

205 추순인 206 서규선 207 최재운 208 문성선
209 김영환 210 정동찬 211 이창진 212 장승환
213 이상열 214 서만일 215 김상조 216 장지훈
217 장지훈 218 김우영 219 류두희 220 엄준원
221 계해정 222 최인종 223 하병일 224 김진호
225 박근수 226 전일주 227 박대순 228 박대일

229 정혜년 230 김상석 231 안병목 232 김태익
233 조준형 234 박재술 235 김기덕 236 이재복
237 백창희 238 김석원 239 정동영 240 김만준
241 이춘옥 242 박재근 243 심재웅 244 김병렬
245 홍순영 246 홍명진 247 장정수 248 김종한
249 정인수 250 홍진호 251 장만덕 252 정원동
253 박정목 254 장두옥 255 김오현 256 최일근
257 김상원 258 최병철 259 박준복 260 류시환
261 조용목 262 박석홍 263 백정석 264 문복수
265 정규하 266 김기석 267 이순석 268 권혁일
269 한선동 270 공정출 271 조규창 272 정순애
273 오광열 275 오광일 276 강정선 277 임필옥
278 김순익 279 김해송 280 여축동 281 손성호
282 유기상 283 우영근 284 우무성 285 정태조
286 이상국 287 정태진 288 김상호 289 윤금숙
290 이재용 291 전순옥 292 김경일 293 석현진
294 이상수 295 장성일 296 최 풍 297 정 음

◎ 꽃등 올린 분

39 김영홍 40 김상한 41 김태영 42 김주석
43 신종수 44 나영연 45 권춘자 46 권가옥
47 이상열 48 김성훈 49 조영부 50 김순조
51 김이규 52 김중락 57 이천지하

◎ 영가등 올린 분 [복위자]

28 정원재 29 이영광 30 염길태 31 이병관
32 홍순영 33 장정수 34 김정자 35 김민정
36 김은재 37 김용균 38 장경숙 39 박근수
40 황춘연 41 양문갑 42 김상철

불사 올린신 분

◎ 12간지불사 올린신 분

백띠 권혁일 쥐띠 권도형

◎ 오백나한불사 올린신 분

154 최선필 155 박세민 157 이승현 158 이소원

◎ 범종불사 올린신 분

정성욱 한희수

◎ 본당 인등 올린신 분

411 박기련

◎ 대적광전 인등 올린신 분

393 이광재 236 최종열 237 김항미 238 최민수
243 최현주 290 권병우 291 최순정 292 권용재
293 권우준 294 권정민 382 김용한 420 최순영
421 김규빈 422 김두현 204 이선휘 205 전춘환
116 이한정 134 김규만 137 우경혜 203 이서운

◎ 산신 인등 올린신 분

81 김기춘 82 신정옥 83 김종수 84 박소영
85 김채은 86 김재유 20 전미연

◎ 만불전 인등 올린신 분

253 ㄱ김승한 254 ㄱ김부리 255 ㄱ김원동
251 ㄱ장병욱 252 ㄱ이부돌

◎ cms 올린신 분 (~2/19)

장미야 4천원 송윤선 7만원 오현규 1만원
성점순 1만원 한천숙 1만원 김성미 5천원
최진석 5천원 전성복 1만원 안진미 6만원
정연이 10만원 김성자 1만원 정재순 3만원
김명선 2.5만원 류윤희 1.5만원 오창혁 1만원
심영선 1.5만원 김수라 3만원 사공순옥 3만원
백승연 3천원 김이규 6천원 김수남 3천원
현미숙 1만원 김현숙 8천원 김제순 1만원

정연이 8천원 서필희 1만원 전태일 5만원
 강춘희 2만원 홍경숙 1만원 황국희 25만원
 정순희 2만원 신인숙 5천원 황금석 7천원
 김연자 1만원 손향숙 2만원 이호진 1만원
 송순분 2만원 전재필 5천원 김옥자 1만원
 장명희 5천원 김관용 5천원 조희선 2만원
 강유주 1만원

왕생극락하옵소서

- ◆ 亡채관불 영가님의 초재가 2월3일에 있었습니다.
 - ◆ 亡박옥이 영가님의 막재가 2월10일에 있었습니다.
 - ◆ 亡박봉선 영가님의 기제사가 2월25일에 있었습니다.
 - ◆ 亡권경오 영가님의 기제사가 2월28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해오름 요양원 소식



동그라미색소폰 공연

1월부터 동그라미색소폰 봉사단이 매월 넷째주 목요일 14시에 해오름요양원을 방문하여 색소폰연주, 국악,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박수도 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동그라미색소폰 봉사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신을 축하합니다

2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백복순어르신, 나영연어르신, 정판임어르신, 장필연어르신, 이태금어르신의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서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케이크와 다과를 나누어 드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성아리랑보존회 공연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고 맑고 고운 선율이 울려 퍼질 때 어르신들께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박수도 치시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 오카리나양상불의 봉사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통하여 액운을 막고 복을 기원한다. 2019. 02. 19 법왕사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많은 신도들을 모시고 달집을 태우면서 액을 막고 대보름의 만월을 보면서 건강등 소원성취를 기원하였다.

| 개인 정기봉사자 | 무하스님(웃음치료), 지은정(미술치료), 이정신·신계영(미술공연)

| 단체 정기봉사자 | 동그라미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달성아리랑보존회(수성구자원봉사센터),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HE봉사단(놀이치료),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양상불공연단(공연활동), 일곱빛깔하모힐링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수선화(이미용봉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라 1만원	박성숙 5천원
강소남 5천원	김수자 1만원	박성은 5천원
강영도 2만원	김숙희 1만원	박수진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순덕 1만원	박순영 5천원
고재욱 2만원	김순연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구정대 2만원	김양순 1만원	박인철 1만원
권순득 2만원	김영애 1만원	박종규 1만원
권순미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종환 1만원
권순영 1만원	김옥경 1만원	박희조 5천원
권순칠 1만원	김옥희 5천원	반룡사 1만원
권영철 5천원	김외환 1만원	배수현 2만원
권오관 2만원	김용태 1만원	배하수 1만원
권오국 1만원	김원형 3만원	사공관 2만원
권지현 2만원	김정규 5천원	서동남 2만원
권춘자 3만원	김정숙 5천원	서찬수 1만원
금명섭 5천원	김정순 3만원	성기옥 1만원
김경자 1만원	김정자 5천원	손수연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진성 1만원	송민경 1만원
김경희 2만원	김필남 2만원	송재욱 1만원
김기덕 2만원	남기웅 1만원	송정숙 5천원
김기수 2만원	노수정 1만원	시명숙 1만원
김대현 5천원	류윤만 1만원	신구자 5천원
김만기 5천원	류환자(차월) 5천원	신귀화 1만원
김명숙 1만원	문성섭 1만원	신돈식 1만원
김명옥 1만원	박경란 1만원	신종호 5천원
김미자 1만원	박경자 5천원	신홍준 1만원
김미정 1만원	박남희 3만원	신화식 1만원
김민주 1만원	박대희 5천원	심규암 5천원
김봉숙 5천원	박동규 5천원	안경순 1만원
김수곤 5천원	박상용 5천원	안명희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자 4만원	정태교 5천원
양나영 5천원	이정화 1만원	정혜숙 1만원
양혜진 1만원	이정희 5천원	조규인 1만원
양희숙 1만원	이정희 3만원	조성자 5천원
여택동 5천원	이준우 5천원	조영석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창수 1만원	조인성 5천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현옥 1만원	진봉희 1만원
유경혜(차월) 2만원	이호동 5천원	채옥연 5천원
유명옥 1만원	장민석 1만원	최금부 1만원
이남희 1만원	장성규 5천원	최분규 1만원
이명숙 2만원	장시원 1만원	최영희 1만원
이병희 1만원	장우성 1만원	최영희 1만원
이복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최윤희 5천원
이성건 4만원	장찬규 5천원	최창숙 5천원
이성환 5천원	전상우(병폐월) 2만원	한규매 1만원
이승환 5천원	정경석 2만원	한희록 1만원
이옥자 1만원	정경숙 1만원	하유미 5천원
이용옥 1만원	정명선 2만원	홍기학 1만원
이인순 5천원	정민경 1만원	홍애분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숙희 1만원	황내환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순옥 5천원	황미선 2만원
이재봉 5천원	정시영 1만원	황영희 1만원
이전희 5천원	정연이 5천원	호산반점 (박남숙) 1만원
이정연 5천원	정옥수 5천원	
이정옥 1만원	정인순 5천원	

합계 : 1,770,000원

무동장으로 후원하신 분

박재용 3만원, 임상덕 1만원, 이영주 3만원

◎ 지출내역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이크 구입비	: 76,000원
우편발송비	: 13,240원
물품구입비	: 348,000원
식자재비	: 1,500,000원

총지출 : 2,025,74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여미란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정판임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30개

이일수 어르신 보호자 : 양말 2세트

서운수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안태임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박스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김필남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하회음식(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보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춘계 삼사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23일 봄맞이 춘계삼사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삼사순례법회는 전남의 유서 깊은 고찰들로 보성군 지리산 대원사, 곡성군 성륜사, 장흥군 보림사에서 봉행합니다. 이들 도량은 대구에서 무척 먼 곳에 있어 참배하기 힘든 도량이오니 이번 기회에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3월 23일(토)

출 발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에서 출발

동참금 3만원

점 심 사중에서 준비

코 스 대원사 - 성륜사 - 보림사

문 의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 기해년 2019년 소원성취 |

법당 일년등 · 사업등 동참 받습니다

-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 고택이신 분들에게는 왕생극락 등을
-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 부모님께서는 보답의 등을
-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 사업등 - 100만원 | 가족등 - 10만원 | 영가등 - 5만원

■ 문 의 : 종무소 766-3747





2019년 중국 불교성지 순례단 모집

법왕사에서는 2019년 초파일 직후 중국의 불교성지를 두루 탐방하는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참배할 성지는 중국 관음성지인 절강성 보타 낙가산, 지장성지인 안휘성 구화산, 문수성지인 산서성 오대산과 최근 새로운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난징의 우수산 불정궁입니다. 이미 2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선착순 1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일정 2019년 6월 12일 ~ 6월 20일(8박9일)

성지 보타 낙가산, 구화산, 오대산, 불정궁

회비 150만원 정도

인원 15명 선착순

(상단부터) 보타 낙가산 | 구화산 | 오대산 | 불정궁



법왕불교대학 특강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아함경'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아함반은 30년 동안 아함경을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부처님의 생애 강좌는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 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관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함경

연담스님 | 제주 천제사 주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부처님의 생애'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교기초강좌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위빠사나 명상 강좌

도경스님 | 조계사 불교대학 강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





봉사단체 자비회 회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사중에서 각종 봉사활동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활동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도 후 법문을 듣고 공양 후 사중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자격 **남녀 구분 없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모임
- 무료급식 매주 수요일 11시 ~ 1시
- 무료급식 동참 계좌
대구은행 505-10-203686-3 자비회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서각**

- 강사: 신임선 선생님
- 약력: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북부도서관 문화강좌
-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색소폰**

- 강사: 박성권 선생님
- 약력: 참사랑 색소폰 클럽 원장(현)
참사랑 문화예술 봉사단 단장(현)
달서구 찾아가는 문화마당 출연
청송군민 위한 음악회 출연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회비: 3만원

 **난타**

- 강사: 김진규 선생님
- 약력: 대구 타악연구회 대표
국악 모듬 북 최고 지도자
-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회비: 3만원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수시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특강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반 2019년 3월 13일 개강 **중급반** 2019년 3월 20일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특강반	영일스님	부처님의 생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특강반	도경스님	우빠사나 명상 강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7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제37회 백고좌법회를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 일시 2018년 12월 7일 ~ 3월 16일(100일간)

👑 장소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제37회 백고좌법회 보살계 및 불명 수지법회

👑 일시 2019년 3월 16일(오전 10시)

👑 장소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불심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85일차	3월 1일 寅	주지스님		93일차	3월 9일 田	재원스님	대전 청우사 주지
86일차	3월 2일 田	보일스님	합천 해인사 학감	94일차	3월 10일 田		
87일차	3월 3일 田	삼현스님	거제 관음사 주지	95일차	3월 11일 田	우관비구니스님	이천 감은사 주지
88일차	3월 4일 田	변운스님	선방정진	96일차	3월 12일 田	법성비구니스님	서울 미타사 주석
89일차	3월 5일 田	해피스님	한국대외대 불교선원장	97일차	3월 13일 田	도연스님	경기도 성중선원장
90일차	3월 6일 田	석암스님	양구 관음선원장	98일차	3월 14일 田	등현스님	의성고원사 화엄승가대학원장
91일차	3월 7일 田	주지스님		99일차	3월 15일 田	주지스님	
92일차	3월 8일 田	성산스님	선방정진	100일차	3월 16일 田	불심도문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6
www.silver79.kr